말씀 속 하나님, 이야기 속 하나님

(사사기 6:1~24)

11.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 하나님, 이야기 속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말씀 속 하나님, 이야기 속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어차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 인간의 언어가 말씀이냐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나의 현실과 격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대형 수족관을 구경하면 두터운 유리에 의해서 수족관과 사람이 격리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간의 언어가 이야기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선민에게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전달될 때 그 언어 속에서 들려지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언어가 말씀이 됩

니다. 이러한 실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언어는 말씀이 아닌 이야기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 IT 산업의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VR(Virtual Reality)기기'가 있는데 가상세계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판매하는 카드보드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상현실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쓰는 커다란 물안경처럼 눈에 쓰는 카드보드를 쓰고, 그것에 스마트폰의 특정 앱을 작동시키면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과 다르게, 이 가상현실기기로 볼 때에는 내가 지금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지금 도심 속의 아파트에 있더라도 아프리카의 초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손에 controler를 끼면 눈앞에 보이는 기린을 직접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앱을 작동하면 아프리카에서 북구의 환상적인 호숫가로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힘들게 히말라야를 등반할 필요 없이도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듯 가상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놀랍습니다.
이 가상현실기기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가상현실기기에 주의를 한 번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가상현실기기를 접하듯이 현실을 접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기기를 눈에 장착하지 않고서도 나는 이미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육체에 눈에 VR기기를 착용하는 대신에 마음이 VR기기를 착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가상현실이 펼쳐지고,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생각하고 의지하고 뜻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현실에서 계속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의 마음에 VR기기를 착용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음은 내 외부에 있는 모든 세계의 대상들을 이름으로 관계합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할 때에 내가 특정한 캐릭터로 상징되는 것처럼, 모든 대상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에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면 실제 손으로 만져지는 지폐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실물을 가리키는 이름이 들어옵니다. 권력이라면 실제 대통령 자리를 내 마음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들어오는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제일 먼저 붙잡는 이름이 VR기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3 자녀를 둔 엄마가 있다면, 자녀가 고3이라는 상황이 제일 먼저 마음에 닿아있습니다. 자녀의 대학입학과 관련이 있는 것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그 전에는

중요하던 일들이 뒤로 밀려버리기도 하고, 아이의 대학 문제와 관련된 일들이 중요한 일로 집결하게 되는데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그 일이 부모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창업과 관계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질서가 다시 잡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람마다 인생의 구간마다 전혀 다른 가상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에게 있어서의 가상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선민이라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간에 마음이 붙잡는 첫 번째 이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VR기기로 착용하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이 될 때에는 사업을 해도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생각과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첫 번째 관심이 됩니다.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와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문제와 관심이 됩니다. 아이가 장가가고 시집갈 때가 됐어도 좋은 혼처를 마련하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와 생각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가 관심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가상현실을 살 수 밖에 없지만, 첫 번째로 마음이 붙잡는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도 주무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육체의 목숨과 인간 세상에서의 위치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자 난리가 납니다. 똑같은 자리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은 제자들이 쓴 VR기기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풍랑 만난 현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듯 푸른 초장에 누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긴 해도 그 이름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VR기기가 되어서 돈을 통해서 현실의 모양과 형세가 재편성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돈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선적인 VR기기가 되면 자식을 통해서 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럴 때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첫 번째 마음에 VR기기로 착용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소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은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기던 40여년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

난의 형태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먹어치우고 파탄시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점은 6장의 뒷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어졌던 신들입니다. 이러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은 미디안에 의해 곡물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상황도 우리가 읽었듯이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넓은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타작기구를 소나 말에 메워서 타작을 해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서는 뒤에 나올 삼손이나 다른 사사와 같은 기개가 보이질 않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큰 핍박과 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분연히 나서서 미디안과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웃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기드온은 15~16절에서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VR기기로 착용하고 펼쳐지는 가상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며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첫 번째 붙잡아서 VR기기로 착용하여 펼쳐질 세상에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관장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마음을 돈, 곡식, 재물, 풍요, 수확 등을 VR기기로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출애굽부터 진행되어온 하나님의 역사가 드보라에게서처럼 기드온에게는 왜 전달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과 함께 있지만, 남편이 사업 생각만을 하고 있다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

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다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드보라와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먼저 써서, 시내 산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크게 들리고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임재 하시던 그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실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드온은 모든 역사적인 언급들 속의 하나님을 그저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리고 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목상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음이 말해주듯이, 기드온의 마음이 첫 번째로 붙잡았던 것은 돈과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설 속의 존재로서, 기드온의 현실과는 격리된 채로 계셨던 것인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로 붙잡는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VR기기로 쓸 때에 천지를 지으신 실제의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돈, 자식, 건강, 인생의 성공, 사업, 내가 종사하는 예술분야의 음악이라는 이름 등의 다른 이름을 VR기기로서 착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부터 격리시키는 이야기의 벽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 기도하다 지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디자인하셨는데, 그 세계를 벗어나서 마음에 다른 것들을 VR기기로 끼고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완전히 바보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치사한 사람이 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돈, 농사, 수확, 물질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

째로 마음에 붙잡아 VR기기로 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준 죄의 힘을 자꾸 활성화 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것들을 마음에 첫 번째 것으로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첫 번째로 붙잡고 착용하려는 세상의 VR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을 VR기기로 착용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살려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려는 나를 십자가를 기억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VR기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마음이 접촉하고 착용할 때에, 실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현실 세계 안으로 실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반드시 매일매일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